

교육감 면담 학부모들 “등하교 3시간 내 아들 우울증 시달려”

눈물의 호소... 아무 소용 없었다

고교 강제배정 탄원에 시교육청 “방법 없다”

광주지역 일반계 고교 강제배정 피해 학부모들이 18일 시교육청을 방문해 장휘국 교육감에게 눈물로 구제를 호소했다. 하지만 장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아무 방법이 없다”며 곤혹스러워 했다.

광주 운암중 학부모 3명과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5분께 교육감실에서 장 교육감을 면담했다.

이들은 10분가량 이어진 면담에서 ‘북구 운암중 아이들이 어떻게 남구에 있는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특히 학부모 A씨는 “고교 배정으로

친구들과 떨어지게 된 아들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친구들과 헤어진 아이가 자살하는 일도 발생해 불안하고 걱정스럽다”고 눈물로 구제대책을 호소했다.

학부모 B씨는 “고교 강제배정으로 인해 시교육청에 대한 학부모들의 원성이 높다”며 “입학 전에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고교 배정 절차가 마무리돼 별도의 대책이나 구제 방법은 없다”며 “입학 후 학교장에 환경개선심사를 제기해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 자녀는 모두 북구 운암중에서

남구의 한고교로 배정됐다. 이들 학부모에 따르면 운암중에서 이 고교로 배정된 학생은 총 8명으로, 통학에만 3시간가량 걸려 구제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 지도서비스를 통해 검색하면 출신중학교에서 배정받은 고교까지 8.09km 떨어져 있다.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버스 타기 전 집과 학교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시간을 산출하면 등하교에만 3시간가량 걸린다는 계산이다.

학부모들은 셔틀버스 운행도 알아 봤지만 학생 8명만은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답답해 했다.

학부모 C씨는 기자를 만나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처지를 호소해도 시교육청 담당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서 “말도 안 되는 배정을 해놓고 반성은커녕 학부모들의 요구에 대꾸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시교육청은 특정 사립학교로 쏠리는 현상을 막겠다며 고교 배정 방식에 성적을 포함하면서 687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강제배정해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이미 배정절차가 마무리됐으며 반 배치 고사까지 끝난 만큼 강제배정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구제대책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학부모의 불만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이런 불만을 모두 받아주면 학교 배정 업무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은 18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강제배정 사태와 관련해 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강제배정 보완책 없으면 손배소”

교학연·일부 학부모 법적 대응

광주시교육청의 고교 강제배정에 대해 지역 교육사회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전남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교학연)은 18일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교육청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학부모들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교학연은 “시교육청이 강제배정을 예견했으면서도 교육의 중심체인 수요자를 무시한 고교배정 기준을 강행해 편중화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학

생의 선택권만 말살한 전형적인 타산 행정이 되고 말았다”며 “피해를 분담하는 부모들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시교육청은 대안이나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담당자만 영전시켰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은 장휘국

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 주민소환운동, 1인 시위 등 법적·물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미경 교학연 사무국장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문책도 없고 대안도 내놓지 않는 시교육청에 또 한번 실망했다”면서 “강제 배정된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를 옮겨갈 권리가 있고 만약 시교육청이 이를 무시하면 학부모들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교생 골초들 “끊기 어렵네”

대표적 ‘작심삼일’ 결심인 금연, 성인만 그럴까?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완도수상고 전교생 450명을 대상으로 금연선포식을 가진 건 지난해 5월, 당시만 해도 성인이 아닌 학교에서 금연 선포식을 열면서 이례적인 관심을 받

금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5주에 걸쳐 실천 교육을 펼쳤고 등·하교 시간 학교 앞에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벌였다.

5개월간의 금연 클리닉 뒤 결과는 어땠을까. 학교측은 15명만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높은 성공률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청소년들도 단칼 금연은

완도수상고, 금연 교육 ‘헛수고’

프로그램 참가 65명, 겨우 15명 성공

았다. 학교측은 당시 ‘스모크 프리 스쿨’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달고 금연 퍼포먼스, 특강 등을 실시하면서 대대적으로 금연 분위기를 조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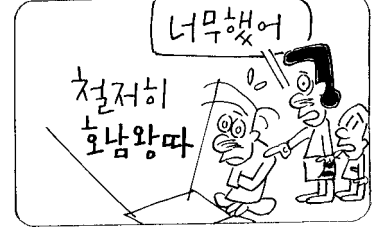
1·2학년에게는 모두 금연 서약을 받았고 이 가운데 흡연 사실 및 자발적 금연 의지를 피력한 학생 65명을 선정, 완도군의료원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클리닉을 열었다.

금연 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5주에 걸쳐 실천 교육을 펼쳤고 등·하교 시간 학교 앞에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벌였다.

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높은 성공률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청소년들도 단칼 금연은 이으면서 고작 23%만 금연에 성공한 것이다.

학교측은 그러나 나머지 50여 명도 청소년 흡연의 문제점, 흡연으로 인한 고통 등을 이해하게 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파악했다. 일각에선 청소년 흡연율이 10%를 넘는 상황에서 학내 흡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생활 지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완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나원침 (8756) 김동두



학폭 기재 거부 전북 교육공무원 19명 징계

교육과학기술부는 18일 특별징계 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도록 한 전북교육청 소속 간부와 지역교육장 등 19명을 징계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사항 기재 거부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경기와 전북 교육청을 상대로 특검감사를 벌여 경기도 교육공무원 30명과 전북 교육공무원 19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아 18일 전북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의결했다. 이날 징계 대상이 된 전북교육청 공무원은 특별징계위에 회부된 19명 전원장 등 19명을 징계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사항 기재 거부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경기와 전북 교육청을 상대로 특검감사를 벌여 경기도 교육공무원 30명과 전북 교육공무원 19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과부 특별징계위는 지역교육장과 교육청 본청 교육공무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한다.

특별징계위는 지난달 9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각각 3차에 걸쳐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전원 출석하지 않

그러나 경기 및 전북 교육청은 교육감이 요구하지 않은 공무원 징계를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가 삼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연남뉴스

불법 노래방 도우미 적발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2개월간 광주 수완지구 일대에서 불법 노래방 도우미를 집중 단속해 66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속칭 보도방 업주 9명, 노래방 업주 31명, 도우미 26명이 적발됐다.

보도방 업주들은 행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도우미를 알선했으며 노래방 업주들은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는 데도 1인당 3만원을 받고 도우미로 채용했다. 보도방 업주들은 지난해 3~11월 노래방들에 도우미를 공급하고 200만~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용기자 dok2000@

“대 출안 해주” 휘발유 분신 소동

○대출을 요구하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 소동을 벌인 50대가 경찰서행.

○경찰에서 강씨는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찾아 이같은 소동을 벌였다고 진술.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장흥댐 상습 불법어로

일당·공무원 무더기 적발

상수원 보호구역인 장흥댐 일원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어로행위를 한 일당과 이들을 비호한 공청 공무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청 장흥지청(지청장 김중필)은 18일 장흥댐 일대에서 전류장치를 이용해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수도법 위반)로 송모(44)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

속 기소했다. 또 이들의 불법 어로를 묵인하는 등 비호한 혐의로 장흥군청 직원 최모(42)씨 등 공무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송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장흥댐 안으로 고무보트를 타고 들어가 배터리를 연결한 쇠파대를 물속에 넣고 전류를 통하게 해 물고기를 기절시키는 방법으로 쏘가리와 메기, 가물치 등 1억원 상당의 어류를 포획한 혐의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적향상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 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기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며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

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결-4738호

2013 광신대학교 평생교육 PROGRAM 수강생모집

예쁜글씨 POP & 폰아트	스토리텔링과 어린이독서지도	 모집기간: ~2013. 3. 8(금)
천연비누 & 화장품 만들기	점핑클레이	
리더 스피치 & 프레젠테이션	성격분석 도형상담	

여성신학원(여전도사과정) 생활한방교육원(산야초 응용관리사)

www.kwangshin.ac.kr

여성가족부 인정 2013-1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승인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3월 중 개강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가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③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④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⑤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자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자**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